

광주경찰 '주경야독'

"승진 기회잡자" 틈나는대로 공부 열풍
문제집 동나...근무지 바꿔 시험준비도

일각선 "근무 소홀" 지적

광주 경찰이 '열공' 모드 들어갔다.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이 많아 관련 서적이 동이 났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경찰청의 증원 계획과 맞물려 지난해보다 승진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어느 때보다 기회가 넓어진 만큼 놓치지 않으려는 경찰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원인이 없는 틈을 타 근무 중 공부를 하거나 아예 근무지를 바꿔 공부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자칫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 경찰이 예년보다 '승진시험'에 열중하는 데는 현 정부에서 발표된 '경찰관 2만 명 증원 계획' 때문이다. 경찰 전체 인력이 증가하면서 경찰·경사·경위·경감·경

정 등 기존 계급별 정원 인원 확충 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하다.

여기에도 유독 많았던 젊은 퇴직자들도 승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80~1982년 당시 대거 채용된 경찰인력 중 올해 60세를 맞는 1954년생 직원들의 빈 자리

를 채울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유행에 계급별 뇌작에 정자 수는 총경(3명)·경정(4명)·경감(14명)·경위(40명) 등 59명으로, 지난해 총경(3명)·경정(2명) 등 총 5명에 불과했던 데 반해 10배 이상 늘었다. 경찰 내부에서 올해가 더없이 좋은 '승진의 해'로 꼽는 이유다.

최고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한 경찰들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시험 관련 서적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 고 있다.

경찰공체회가 운영하는 교재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실무총합 모의고사 문제집 등은 이미 품절된 상태로 경찰실무 I·II도 지난해 말 매진된 뒤 최근 재판매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승진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승진해 주는 근속(50%)과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20%), 시험(20%), 특진(10%)이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승진시험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주변 동료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그나마 치안 수요가 적은 경찰서는 괜찮지만 많은 곳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브레인쇼핑 입직원들이 형령한 회장을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고 있다.

경찰공체회가 운영하는 교재쇼

핑몰에서 판매하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실무총합 모의고사 문제집 등은 이미 품절된 상태로 경찰실

무 I·II도 지난해 말 매진된 뒤 최

근 재판매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승진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승진해 주는 근속(50%)과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20%), 시험(20%), 특진(10%)이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승진시험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주변 동료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그나마 치안 수요가 적은 경찰서는 괜찮지만 많은 곳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브레인쇼핑 입직원들이 형령한 회장을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승진 시험은 15일 열린다.

경찰승진 시험은 15일 열린다.